

배포일시	2025. 06. 12.(목)		배포일시	배포 즉시
보도자료 담당	대외협력팀	최대건 연구원	061-928-8048	
			dgchoi23@vaccinecmo.or.kr	

미생물실증지원센터, 알펙스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... ‘mRNA 의약품 공동개발’

-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(센터장 조민, 이하 센터)는 (주)알펙스바이오(대표 오종원)와 mRNA 산업에서 의약품 개발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12일에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mRNA 원천기술을 활용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mRNA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.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수행을 포함해 mRNA 기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.
- 협약에 따라 알펙스바이오는 ▲mRNA 및 자가복제 RNA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구축 및 평가, ▲mRNA/LNP 공정 확립, ▲신규 제품 플랫폼 개발, ▲국내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센터는 ▲GMP 기반의 mRNA 의약품 공정개발 및 제조 인프라 제공, ▲기술 도입 및 사업화 자문, ▲제품의 원액 및 완제 생산 등 전 주기

지원을 담당한다. 이를 통해 R&D 초기 단계부터 생산까지 연계된 공공 CDMO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- 센터는 기존 제조시설과 신규 mRNA 제조동을 바탕으로 mRNA CDMO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. 비임상 시료부터 국가 비상 시 대응 가능한 mRNA 백신 공급까지 아우르는 전 생산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. 특히 아이솔레이터(Isolator) 사양의 프리필드시린지 라인도 새롭게 구축되어, 1ml 프리필드시린지 및 2R, 6R 바이알 단위의 완제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지며, 이를 통해 사업 범위가 대폭 확장된다.
- 알펙스바이오는 RNA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기업으로, 독자적인 mRNA 플랫폼 기술과 RNA 바이러스 역유전학 기반의 차세대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백신 및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 중이며, 비변형 핵산을 이용한 안전성과 효능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앞서고 있다.
- 한편, 정부는 mRNA 기반의 신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다수의 제약사들도 이에 발맞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 질병관리청은 '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' 사업을 통해 GC녹십자, 유바이오로지스, 한국비엠아이, 레모넥스 등 국내 제약사에 2028년까지 총 5,052억 원을 투자해 mRNA 백신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mRNA 기반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, 백신 및 치료제의 국내 자급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 : 사진자료 2부. 끝.

본 저작물은 (재)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로, 출처 표시를 하실 경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

[붙임]



▲ 왼쪽부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본관, mRNA 제조동, 교육관



PCMO

미생물실증지원센터

▲ (주)알펙스바이오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로고